

<서식6>

정책연구 평가 결과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정책연구과제명	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를 위한 소득 재산 기준 선정 연구	연구기관/책임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책임연구원 오미애
부서/과제담당관	복지정보기획과장 신지명	담당공무원	윤종현 사무관
연구 방식	1. [√] 위탁형 용역 2. [] 공동연구형 용역 3. [] 자문형 용역		
연구자 선정방법	1. [] 일반경쟁계약 2. [√] 수의계약 ※ 일반경쟁입찰 진행하였으나 2회 연속 단일응찰로 수의계약		
연구 기간	2019. 09. 17. ~ 2019. 12. 13. (4 개월)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복지급여 관리 과정에서 과도한 수기조사로 발생하는 업무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급여 결정 지원을 위해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활용하고 있는 소득·재산정보에 대해 변동성 및 영향력 분석 등의 다양한 통계분석이 이루어졌다.

가구형태별로 학습된 복지급여 수급여부에 대한 분류모형을 적용하여 모집단을 적합 및 부적합 의 부모집단을 나누었고, 각 부모집단에 대해 확인조사 된 인정소득금액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각 부모집단 따라 나타난 분류모형의 성능을 수급여부에 대한 민감도와 특이도를 통해 평가하여 적정기준선을 제시하였다.

평가 결과

분석 절차의 논리적 설계되어 있고, 현장 적용한 의사결정 결과를 줄 수 있는 형태로 과제를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과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는 복지급여 수급여부에 따른 분류모형의 결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추가된 훈련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급여 반자동 관리모형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모형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의사결정에 필요한 소득정보가 얻어진 훈련데이터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혹은 보정이 필요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모형 결과의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추후과제를 통해서 확인조사의 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와 신청조사의 복지급여 관리 업무 반자동화는 각각의 모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